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제16편

일곱 우레의 베일을 벗기다: 요한계시록과 숨겨진 역사에 대한 예언적 분석

Jeff Pippenger

2023-11-15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나타난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에 의해 식별되는 예언적 사건들의 연속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사건들의 전개 속에서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의 역사를 서로 중첩해 볼 지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한 이해의 토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봉인이 풀려 드러나는 진리들을 이해할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 줍니다. 계시록의 복에는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는 역사의 흐름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듣고, 읽고, 지키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적 서술과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에 대한 고찰에서 잠시 벗어나,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관통하는 정보 고속도로의 길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죽어 있었던 '삼일 반'의 의미를 규명하려 한다. 이제 우리가 밝힐 것은 '광야'의 상징성이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에 의해 확립된 사건의 순서에 대한 네 가지 예언적 증인을 확인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의 선, 두 증인의 선, 짐승의 형상의 선, 그리고 거짓 북방 왕의 선이다.

거짓된 북방의 왕의 라인의 후반부는 538년에 교황권이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때 교황권, 곧 영적으로 거짓된 북방의 왕은 영적 예루살렘과 영적 이스라엘을 1,260년 동안 짓밟았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누가복음 21:24.

요한은 성소와 군대 둘 다를 축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뜰은 제외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천이백육십 년 동안 넘겨졌기 때문이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축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뜰은 남겨 두고 축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이라.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1, 2.

요한과 누가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는다"고 증언한다. 요한은 그 기간을 밝히고, 누가는 그 역사의 결말을 가리킨다. 이 두 증인은 다니엘서 8장 13절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던 자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그 환상이,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게 되는 일에 관하여, 어느 때까지이겠느냐?' 하더라. 다니엘 8:13.

성소와 군대가 얼마 동안 짓밟힐 것인가 하는 질문은, 다니엘서에서 예루살렘이 '성소'와 또한 '군대'로 표현되어 있음을 전제로, 예루살렘을 짓밟을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을 지목한다. J. N. Andrews가 밝힌 바와 같이,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근본적 이해는 이 구절이 성소와 군대를 짓밟은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절이 지적하는 첫 번째 황폐케 하는 세력은 이교이며, 두 번째는 교황권이다. '군대'라는 말은, 요한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가리키는 다니엘의 표현이다.

"다니엘서 8장에는 '황폐'가 두 가지 있다. 이 사실을 조시아 리치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했으므로 그의 말을 소개한다:"

'The daily sacrifice'는 영어 본문에서의 현행 독법이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은 전혀 없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그것은 번역자들이 덧붙인 주석이나 해석이다. 참된 독법은 'the daily and the transgression of desolation'이며, 'daily'와 'transgression'이 'and'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곧 'the daily desolation'과 'the transgression of desolation'이다. 이것들은 성소와 군대를 황폐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두 개의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다.'-예언적 해설, 제1권, 127쪽.

상번제와 황폐케 하는 죄과로 말미암아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13절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점이 확정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 하나를 확증하는데, 곧 이 두 가지 황폐가 사탄이 여호와의 예배와 그 대의를 전복하려 시도해 온 두 가지 큰 형태라는 것이다. 밀러 씨의 이 두 용어의 의미에 대한 언급과, 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그가 취한 방식은 다음의 제목 아래 제시되어 있다:

두 가지 황폐함은 이교와 교황권이다

"나는 계속 읽었고, 그것([the daily])이 다니엘서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서 [콘코던스의 도움을 받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take way;' he shall take away, 'the daily;' 'from the time the daily shall be taken away' 등을 찾았다. 나는 계속 읽었지만 그 구절에 대한 빛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에 이르렀다. 'For the mystery of iniquity doth already work; only he who now letteth will let, until he be taken out of the way, and then shall that wicked be revealed,' 등등. 그리고 내가 그 구절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the daily'다! 자, 그러면 바울이 'he who now letteth,' 즉 방해하는 자로 무엇을 뜻하는가? 'the man of sin'과 'the wicked'는 교황주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황주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교주의다. 그렇다면 'the daily'는 이교주의를 의미해야 한다.'-Second Advent Manual, page 66." J. N. Andrews, The Sanctuary and the 2300 Days, 33, 34.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교가 1,260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고, 이어서 교황주의가 추가로 1,260년 동안 같은 일을 했다. 누가와 요한에 따르면, 교황권은 1,26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았으며,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1798에서 1,260년을 빼면 538이 된다. 538에서 다시 1,260년을 빼면 기원전 723년에 이르는데, 그때 당시 문자적 북방 왕이었던 앗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포로로 끌고 갔다.

요한은 교황권이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던 천이백육십 년만을 언급하지만, 누가는 이교와 교황주의가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두 차례의 천이백육십 년 기간을 모두 다룬다. 그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단일한 "때"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여러 때"의 성취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1856년에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었고, 7년 뒤에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진리를 거절했으므로, 재림주의가 이러한 단순한 성경적 사실들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지적하는 사실은, 세 개의 이정표를 식별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정표 사이의 한 기간,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정표 사이의 또 다른 기간을 나타내는 일곱 천등의 감추어진 역사가, 가짜 북방 왕의 예언적 선상 안에서 표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흐름은 기원전 723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이 북방의 실제 왕인 앗수르 왕의 손에 의해 종살이로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538년에 영적 북방 왕이 권세를 얻었고, 그는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까지 또 1,260년 동안 영적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기원전 723년부터 538년까지 이스라엘을 예속시키던 세력은 항상 이교 세력이었다.

그리스도의 연대표는 서기 27년 그분의 침례 때 북방의 참된 왕의 기름 부음을 지적하며, 예언상의 1,260일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은 서기 34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북방의 참된 왕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권능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 1,260일 내내 걸어서 다니지 않으신 유일한 때는 승리의 입성 때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셨을 때였다. 그러므로 그분은 1,260일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으셨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 가짜 북방의 왕의 연대표와 참된 북방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연대표, 이 두 연대표 모두가 1,260일 동안 예루살렘과 군대를 짓밟았다.

이교는 혈통적 유대인의 지상 성소 봉사의 예배 제도를 모조한 것이었고, 교황주의는 영적 유대인의 하늘 성소 봉사를 모조한 것이다. 이교의 1,260년은 그리스도의 1,260일에 상응했고, 교황주의의 1,260년은 제자들의 1,260일에 상응했다.

두 라인 각각은 2023년 7월에 공개적으로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의 동일한 예언적 구조를 담고 있다. 그 봉인 해제는 밀러주의 운동의 첫 번째 실망을 인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실망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의 때'라고 불리는 기간을 열었다. '지체의 때'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완전히 확립되었을 때, 뉴햄프셔주 엑서터 야영회에서 끝났다. 엑서터 야영회는 두 번째 이정표가 되었고, 이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을 열어, 심판의 세 번째 이정표와 마지막 실망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세 가지 이정표는 첫 번째 실망, 한밤중 외침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실망이었다. 그 세 이정표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와 대응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나타낸다.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실망이라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나타낸다.

밀러파 역사에는 1,260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밀러파 역사는 첫 운동의 역사이므로 마지막 운동을 예표한다. 마지막 운동에서의 첫 실망의 역사는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되었고,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묘사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첫 운동이 예표한 마지막 운동의 첫 실망을 표시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실망으로 인해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던 1,260일의 기간이 시작되었고, 이로써 비유에서 말하는 지체의 때가 표시되었다. 그들이 부활할 때, 일요일 법령에 대한 심판과 같은 시각에 그들은 기호로 높이 들려진다. 두 증인의 역사에는 상징적인 1,260일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 천둥의 숨겨진 역사에서 셋째 천사의 전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른 병행선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만, 셋째 천사의 선과 참된 북방 왕의 선, 그리고 가짜 북방 왕의 선은 모두 시작점이 있고 그 뒤로 중간 지점에 이르는 기간이 이어지며 다시 그 뒤로 종결점에서의 심판에 이르는 기간이 이어지는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지닌다.

1,260일은 일곱 우리의 숨겨진 역사의 핵심 요소이다. 1,260일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상징된다.

그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2:6.

교회는 1,260년 동안 계속된 교황권의 탄압을 피해 광야로 피신했다. 14절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도록 하였으니,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2:14.

교회는 1,260년 동안 용과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 도피했으며, 따라서 '광야'는 1,260일을 상징한다. 그 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직접적으로 일곱 번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각 경우에 그것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가리킨다.

기원전 723년부터 538년에 이르기까지 이교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든, 또는 교황권이 영적 예루살렘과 그 안의 예배자들을 짓밟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게 된 일을 보여 주는 한 예증이었다. 이 일은 레위기 25장과 26장에 제시된 '땅의 안식일'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뜨린 데서 비롯되었다. 26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다툼이라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칼이 임하게 하리니 그것이 내 언약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일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라. 레위기 26:25.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언약의 원한"으로 표현되는 종살이와 흩어짐을 가져왔다. 다니엘이 모세의 "저주"와 "맹세"라고 부르는, 곧 "내 언약의 원한"이라 불리기도 하는 그 징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 9장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사역의 더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 엘렌 화잇의 저술에서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관된 평가는, 그들이 "원인에서 결과로 추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암흑시대의 1,260년을 이해한다고 공언할지

모르지만, 그 짓밟힘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눈먼 것이다.

그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고히 할 것이며, 그 이레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의 만연함으로 인해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마침내 끝에 이를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이미 정해진 것이 그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 9:27.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것은 '그의 언약을 원수 갚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저주'의 기간은 2,520년이었고, 바로 그 동일한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기간은 2,520일이었다. 일곱 우렛소리의 숨겨진 역사에 구조를 부여하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와 부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언약을 확증하시기로 되어 있던 예언적 한 주간에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셋째, 그리고 마지막 글자로 표시되는 세 개의 이정표가 있었다.

그 주간의 첫 번째 이정표는 그분의 세례였고, 두 번째 이정표는 십자가였으며, 마지막 이정표는 스테반의 죽음이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일곱 때"를 보도록 인도하신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문자적 옛 백성이 거부했던 바로 그 언약을 확증하신 바로 그 예언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없애 버린다. 결국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진리"에 대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해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진리"를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이고, 예수는 "진리"이시다.

이는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레위기 25장과 26장의 언약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일곱 때"의 "저주"는 땅을 쉬게 하라는 지침과 희년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부작위의 죄였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을 직접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도록 명령받은 일을 생략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들은 단지 땅을 쉬게 하라는 지침을 무시했을 뿐이다. 어떤 거룩하지 않은 이유에서든,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로 하여금 발견하게 인도한 "일곱 때"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참으로 조사할 시간을 결코 내지 않았을 뿐이며,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바로 그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부작위의 반역을 범하고 있다. 처음은 끝을 보여 준다.

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지칭된 1260일은 '일곱 때'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사역 1260일과 제자들의 사역 1260일은 모두 언약이 확증되던 온 한 이레를 나타낸다. 또한 이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던 1260년과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던 1260년은 모두 모세의 저주에서 말하는 '일곱 때' 전체를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이 지난 후, 죽었던 뼈들이 14만 4천으로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9장에서 그랬듯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일곱 때'의 언약의 조건에는 원수의 땅에 있게 된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자신들이 흠여졌다는 현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레위기 26장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쇠약해져 가리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쇠약해져 가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곧 그들이 내게 범한 허물과 또한 나를 거슬러 행한 것을 자복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대항하여 행하여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데려갔음을 인정하며, 그때에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39-42.

성경에서 "pine away"라는 표현은 녹아 없어지고, 부패하며, 소멸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죽어 말라버린 뼈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자신의 처지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음을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26.

2020년 7월 18일,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첫 번째 실망이 일어났다. 이는 거룩한 예언적 개혁선들에서 나타난 다른 모든 첫 실망들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에스겔 37장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이 해체되고 부패하고 소멸되어, 마침내 단지 죽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일 뿐인 상태가 되었음을 밝힌다. 그들은 원수의 땅, 곧 죽음의 땅에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해 거리에 내버려졌다.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에스겔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리에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의 실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교훈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너는 내 앞에 서게 되리라. 또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로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 15:19.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자 한다면 돌아와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귀한 것을 천한 것에서 분별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는다. 본문의 문맥은 그 천한 자들이 그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자들임을 밝힌다. 본문에서 그가 낙담한 상태로 묘사될 때, 그는 자신이 홀로 있었다고 밝힌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17.

예레미야는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앉아 있지 않았으니, 그는 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비웃는 자들의 모임인 비열한 자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다. 1863년에 재림주의는 모세의 '일곱 때'를 거절하기 위해 바벨론의 딸들의 성경적 방법론으로 되돌아가면서 '비웃는 자들의 모임'으로의 회귀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보다 마지막 날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죽은 뼈들의 골짜기 속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원수의 땅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들은 거리에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던 자들에게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무리는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올 수 있으나, 그는 그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려면, '일곱 때'와 직접 관련된 모세가 준 지시들도 이행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거리에서 죽어 있는 자들은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으며, 예언적으로 그것은 '광야'이다.

이 때문에 죽은 자들이 처음 깨어나는 일은 뼈들이 서로 맞추어 결합되게 하는 메시지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지 않다. 그들을 강력한 군대로 바꾸려면 봉인하는 메시지인 네 바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음성'에서 온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고, 그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것은 곧아지고, 거친 곳은 평탄해질 것이다. 이사야 40:1-4.

그 음성은 광야에서 오는데, 그것은 "일곱 때"의 흠어짐을 상징한다. 그 음성은 광야에 있다. 이는 에스겔 역시 죽은 뼈들의 골짜기로 이끌려 갔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골짜기에서 증언하고 있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내시고, 뼈로 가득한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나를 두셨다. 에스겔 37:1.

그 골짜기는 사흘 반 동안의 광야이다. 그 음성의 약속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 약속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녀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은 그녀가 모든 죄에 대해 "두 배"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모세가 제시한 처방은 그들의 죄악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도 자백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들의 죄악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진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정녕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음성엔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돌이켜 떠났으므로,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맹세가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대하여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확증하셨나니, 온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행하여진 일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9:11-13.